



목 차

1. 머리말
2.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3. 폐기물 수집현황
4. 폐기물 소각현황
5. 폐기물 매립현황

1.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1일에 쓰레기를 2.2kg 배출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것은 특히 난방용 연탄이 주요 원인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 중 연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38.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산업사회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연료의 고급화

로 연탄의 사용은 저감되어 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민소득의 상승에 따라서 내구재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1회용품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계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류의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생활폐기물의 구성이 선진국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폐기물 발생은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는 93.9%를 단순히 매립에 의존하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제는 매립할 장소마저 없어져 가고 있으며, 이른바 'Nimby'라고 부르는 환경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매립지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부딪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에서부터 기업집단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이제 폐기물 문제는 너와 나를 가릴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전지구적인 문제체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폐기물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억제해야 하겠지만 그 최종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2.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폐기물은 그 발생원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로 분류된다. 산업폐기물은 또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나뉜다.

이들 폐기물 중 생활쓰레기는 현재 특별 청소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며, 소각하고 남은 재와 불연성 물질은 매립하고,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한편 산업폐기물은 폐기물 배출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 일반산업폐기물은 매립하고, 특정유해 산업폐기물은 소각·중화 등 중간 처리 후 유해 성분이 없는 물질은 일반 매립지에 매립하고 유해 성분이 남아 있는 물질은 특정 매립지에 매립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폐기물의 연도별 발생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대로 1989년 기준 총

9,822개 업소에서 1일 평균 57,645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 산업폐기물은 55,335톤으로 전체의 96%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배출량 중 45.1%인 26,007톤은 배출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54.9%인 31,638톤은 산업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한편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53.9%에 해당하는 31,064톤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23.4%에 해당하는 16,976톤

[표 1] 산업폐기물의 발생현황

(단위 : t/일)

구 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31,354	33,949	37,065	40,307	51,230	57,645
특정 산업	소 계	909	1,020	1,558	1,505	2,013	2,310
	특정 유해	50	67	87	104	127	162
	폐 유	220	228	290	321	434	434
	폐 합 성 수 지	239	189	306	372	546	682
	폐 산 폐 알 카 리	400	535	875	708	906	1,032
일반 산업	소 계	30,445	32,329	35,507	33,802	49,217	55,335
	유 기 물 류	6,136	6,140	6,365	7,797	15,170	15,953
	무 기 물 류	24,309	26,189	29,142	31,005	34,047	39,382
업 소 수 (개 소)		8,756	10,272	11,633	6,675	8,015	9,822

자료 : 환경처, 『환경백서』, 1990

이 매립, 3.3%에 해당하는 1,919톤이 소각되고 있었다.

환경처 자료에서 1992년의 경우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재활용이 2,682,770 소각이 629,757 매립 2,337,669 기타 442,998이고 이중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만 보면 재활용이 159,082.95 소각 212,386.89 매립 21,004.53 기타 90,617.93이다(단위는 ton).

3. 폐기물 수집현황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처리 방법에 따라 재활용될 수 있는 품목, 소각, 매립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폐기물 수집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조사한 '92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실적'이라는 자료에서 보면 수집업체 현황이 나온다[표 2].

폐기물 처리 과정의 1단계로서 폐기물 발생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일을 하는 업체를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라고 한다. 이런 수집·운반업체들이 폐기물을 운반하는데 폐기물 발생량과 폐기물 종류에 따라 운반 주가 결정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폐기물 운반 주가는 폐기물 저장 장소 여부와 위탁처리 업자의 운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실정이다.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환경처의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고,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분리수거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펴는 등 그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발생 업체들은 수집·운반업자들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수집·운반 비용이 너무 고가라는 점 ▲ 운반시기가 불규칙적이라는 점 ▲ 수거조차 꺼리고 있다

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수집, 운반 업체들은 수거·운반 비용으로 수거차량과 수거장비의 비용, 노임, 폐기물 적치장, 대기오염, 소음, 교통체증 및 연료비용 그리고 악취 등 외부비용과 지하수 오염의 위험성을 내세우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위탁 업체들의 주장은 수집·운반 비용도 그렇지만 소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매립지의 절대 부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특정폐기물은 주로 기업체(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면 국민이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수거상의 문제는 점차 향상되고 있다.

자원재생공사, 소비자 모임 등에서 적극 쓰레기 분리 수거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민들 자신도 서서히 습관화되어가고 있다.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조사한 일반폐기물 배출현황과 재활용 가능품은 [표 3], [표 4]와 같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산업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경일환경개발(주)(대표 양병렬)은 일일 폐기물 수집량이 일반폐기물 250t, 특정폐기물 180t이며, 주요 수집물로는 연소재, 슬래그, 주물사, 폐수처리 오니가 있다. 수집해서 바로 김포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는 이 회사는 수도권 매립지가 야간 반입(저녁 7시~아침 6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와 매립지 주민들의 검사과정이 까다로운 점이 애로사항이며, 거리상의 문제로 과거엔 하루에 3~4회 차량 운행하던 것을 현재는 2회 운행하고 있어 난지도

[표 2] 폐기물 수집업체 현황(92년)

(단위 : 명, 대)

구 분		계	민간수집상	한국자원재생공사	향우사업
개	소	654	648	5개사업소	1
인	계	3,926	3,616	270	40
	수 집 원	3,194	3,043	124	27
	운 전 원	705	567	129	9
	기 타	27	6	17	4
장	수 집 차	695	567	119	9
	중 기	13	6	3	4
	손 수 레	2,260	2,248		12
· 비	기 타	15	6	9	
면	적	77,492평	71,942평	4,850평	700평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부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표 3] 일반폐기물 배출현황(91년)

단위: 부피

인 구	연간 배출량(천톤)			인/일 배출량(kg)		
	계	일반쓰레기	연탄재	계	일반쓰레기	연탄재
10,904,527명	11,672 (7,218)	9,942 (5,488)	1,730 (1,730)	2,933 (1,814)	2,498 (1,379)	0.435 (0.435)

※ ()는 중량(톤)으로 환산한 수치임(일반쓰레기 계수 0.552)
 ※ 연탄재는 연탄소비량을 기준(연탄소비량×0.361): 연료과, 석탄협회
 ※ 일배출량은 31,978톤(중량으로 환산시: 19,775톤)

[표 4] 재활용 가능품(91년)

종 류	회 수 가 능 량 (천 톤)	비 율 (%)	비 고
고 지	876	58.6	제지공업협동조합
유 리 병	245	16.4	유리공업협동조합
알 루 미 늬 캔	1.8	0.12	상 공 부
철 제 캔	72	4.8	상 공 부
플 라 스틱	299	20	상 공 부
연 발 생 량	1,494	100	
일 발 생 량	4,093	100	

※ 전국발생량 중 서울시 발생량 추정(30% 적용), 고철은 제외

[표 5] 연도별 일반쓰레기 등 배출량

연 도	인 구 (인)	쓰레기 배출량(천톤)			1인 1일 배출량(kg/인/일)		
		계	일반쓰레기	연탄재	계	일반쓰레기	연탄재
1985	9,499,021	8,561	5,396	3,165	2.469	1.556	0.913
1986	9,635,471	9,296	6,008	3,288	2.643	1.708	0.935
1987	9,991,089	9,898	6,747	3,151	2.714	1.850	0.864
1988	10,286,503	10,541	7,569	2,972	2.800	2.010	0.790
1989	10,576,794	10,913	8,472	2,441	2.827	2.195	0.632
1990	10,627,790	11,110	8,871	2,239	2.864	2.287	0.577
1991	10,904,527	11,672	9,942	1,730	2.933	2.498	0.435
1992	10,905,527	10,443	9,200	1,243	2.617	2.305	0.312

※ 자료: 서울시청 청소사업부

를 이용했을 때보다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회사의 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수집·운반 업체인 대정환경은 한 달 기준으로 업체당 일반폐기물이 100~500t, 특정폐기물이 50t정도이다.

주요 수집폐기물은 폐모래, 합성수지, 폐합성유, 폐유이고 중간처리 과정 없이 바로 김포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다.

이 회사도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이 많았고 반입 시간이 일관성 없이 자주 바뀌어 여러 가지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 회사는 용인에 소각시설을 갖추고 중간처리업을 겸하고 있다.

4. 폐기물 소각 현황 및 문제점

위탁처리 방법은 대부분이 매립 처리이나 가연성 폐기물은 근본적으로 소각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폐합성수지류를 포함한 폐기물은 정상적인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환경관련법의 강화에 따른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는 문제 때문에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소각을 기피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승하여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각을 하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 소각로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특정 물질을 소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타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비용 등이 있다. 소각에 관한 일반비용이란 소각로의 입지 선정, 부지매입, 건설, 대기오염방지시설비의 장차 운영비, 재의 처리비용, 그리고 이로

[표 6] 분기별 일반쓰레기 등 수집량

(단위 : 천톤)

연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일반	연탄재	계	일반	연탄재	계	일반	연탄재	계	일반	연탄재
1985	2,368	1,331	1,037	2,000	1,592	408	1,690	1,400	290	2,503	1,073	1,430
1986	2,554	1,436	1,118	2,201	1,723	478	1,941	1,635	306	2,600	1,214	1,386
1987	2,647	1,589	1,058	2,395	1,934	461	2,100	1,752	348	2,756	1,473	1,283
1988	2,858	1,744	1,114	2,528	2,108	420	2,231	2,005	226	2,858	1,647	1,211
1989	2,979	2,079	900	2,660	2,354	306	2,360	2,178	182	2,914	1,851	1,063
1990	3,042	2,263	779	2,890	2,531	359	2,712	2,508	204	2,466	1,569	897
1991	3,115	2,412	703	2,821	2,551	270	2,627	2,527	90	3,189	2,522	667
1992	2,923	2,454	469	2,806	2,592	214	2,329	2,228	101	2,385	1,926	459

자료제공 : 서울시청 청소사업부

인한 대기오염 등의 외부비용을 포함한다. 더욱이 환경법규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완벽한 대기오염방지 시설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도 소각업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크다. 그래서 폐기물 발생업체가 완벽한 소각시설을 갖추고 자체 소각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는데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의 말썽도 없고 소각으로 인한 에너지 효과도 커 경제적이다.

5. 폐기물 매립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실태에서 본바와 같이 생활쓰레기의 94%, 산업폐기물의 29.4%가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바 이는 앞으로 매립장의 확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즉,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의 배출량은 계속 증

가하는 데 비해 이들 폐기물을 최종 처리할 매립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현재와 같은 단순투기(投棄) 방법에 의한 매립이 계속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이 유발될 것이다.

이러한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폐기물의 배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 중에서도 재생 또는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최대한 회수하여 자원화하며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수거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연료화함으로써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함께 매립장의 설치 운영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날로 증가되는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의 폐기물 매립장은 폐기물 처리에 있어 매립의 의존도가 높는데 비해 대부분이 사용 연한이 짧은 소규모의 매립장이며, 또한 부산 석대매립지(186,000평), 안산 본오매립지(149,000평), 인천(67,300평)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위생적인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약 78%가 단순매립으로 적정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은 거의 갖추고 있지 않다.

1989년 현재 전국의 폐기물 매립시설은 다음 [표 7]에서와 같이 601개소, 10,926km²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표 7]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현황(1989)

매립지 수	면적(km ²)	평균매립고(m)	연간매립량(천m ³)	사용가능연한
601개소	10,926	11	132,895	1991~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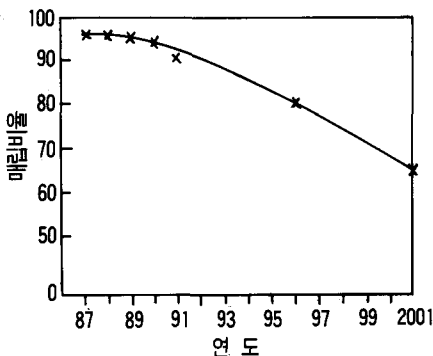
자료 : 환경처, 『환경백서』, 1990

이 소규모의 매립장으로 그나마 1991년에는 대부분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유일한 매립지인 난지도가 약 90만평(2,936천km²)에 40m의 매립고를 유지하고 있어 이미 폐쇄 상태이고 약 630만평 규모의 김포 매립지를 현재 사용 중이다.

먼저 일반폐기물의 매립 현황을 보면 최근들어 폐기물 매립지의 확보 곤란과 매립 비용의 상승으로 범국가 차원에서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의식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장을 삭제하고 새로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앞으로 매립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매립 비율과 환경처의 폐기물 종합대책의 자료를 토대로 장래 매립률의 변화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1990년까지 90% 이상을 상회하다가 지난해 비로소 89%가 되었다.

정부나 소비자의 재활용 의지가 강하고 위생 소각률도 2001년까지 27.4%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그림 1] 쓰레기의 연도별 매립비율 변화 추이



[표 8] 특정폐기물 종류별 매립현황과 장래 예측매립량

단위 : 톤 / 연(%)

종 류	1989	1990	1996	2001
특 정 유 해	10,473(17.7)*	15,431(18.8)	59,370(15)	98,490(10)
폐 유	-	28,681(15.1)	22,645(40)	28,174(2)
폐 합 성 수 지	104,731(42.0)	53,959(17.9)	142,234(15)	190,722(10)
폐 산 · 폐 알 카 리	-	1,720(0.4)	2,114(0.4)	2,699(0.4)
오 니 류	2,524,177(57.7)	2,678,074(54.0)	4,645,530(45)	6,657,124(35)
동 식 물 고 형 분	58,878(19.7)	59,358(19.0)	79,439(19)	69,240(15)
폐 석 면	2,124(22.2)	2,691(96.9)	280(100)	0
총 계	2,700,383(48.9)	2,839,914(45.5)	4,951,612(37.6)	7,046,449(28.8)

※ ○ 보관량 포함, () * 전체발생량 중 매립비율
※ 자료 : 서울시청 청소사업부

적으로 매립률은 1996년에는 80%, 2001년에는 65%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2001년 재활용률 23%, 소각 12% 추정).

특정폐기물은 종류별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발생량 예측 때와 같이 특정폐기물의 매립량과 매립 비율을 나타내면 [표 8]과 같고 이에 따라 1996년 및 2001년도의 매립 비율과 매립량을 추산해 보았다.

표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특정폐기물의 경우도 매립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재활용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소각처리, 열회수로 점진적으로 전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난지도가 매립지의 역할을 했을 당시에는 별 어려움을 못 느꼈으나 난지도가 그 기능을 잃고 김포 매립지로 자리를 옮기게 된 이상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되었다.

앞에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소각, 매립의 현황과 각각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른 문제가 많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기물 배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 중에서도 재생,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최대한 회수하여 자원화하여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연료화 함으로써 매립되는 쓰레기는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분리수거, 완전 소각에 힘써 환경에 역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매립 방식도 종전의 단순매립 방식을 지양하고, 위생매립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처로부터 허가받은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리, 최종처리 업체 목록을 수록한다. ▣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현황

관할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구역	처리대상폐기물
서울	보광산업(주)	김선홍	경기 부천 중삼정 205-1	서울청	폐유, 유기용제, 산·알카리(액상), 폐합고, 유기용제, 폐유, 지정오니, 공정오니, 폐수오니, 동물잔재, 폐석고, 석회, 광재, 분진, 주물사 등
	원광기업(주)	이상열	인천 서 석남 223-382	서울청	폐유, 유기용제, 폐산·알카리(액상), 오니(지정, 공정, 폐수) 폐합고, 폐유, 동물잔재, 석고, 석회, 광재, 분진, 주물사, 내화물 등
	(주)천일화학	심재구	인천 서 석남 223-153	서울청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젠족), 폐산·알카리
	(주)덕영산업	최동환	경기 부천 오정 내동 195	서울청	폐합고, 폐유기용제, 지정오니, 폐유, 공정오니, 분진, 광재, 주물사, 폐사, 소각잔사, 촉매, 흡착재, 폐산, 알카리
	(주)협창환경	조대영	경기 부천 중 오정 609-2	서울청	폐산·알카리, 폐유, 유기용제(비할로젠)(액상),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오니(고상폐수, 공정), 동물성잔재물
	(주)금호환경	원영돈	인천 서 석남 223-256	서울청	폐유, 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 오니, 동물성잔재, 폐사, 소각잔재, 광재, 분진, 폐사, 내화물, 소각잔재, 오니(폐수, 공정)석고(회), 동물잔재
	이영화성공업(주)	윤영진	인천 서 석남 223-46	서울청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 피혁, 고무, 기타) 폐수오니, 공정오니
	동양환경개발(주)	채우식	경기 양주 회천 덕계 350-7	서울청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 폐유, 폐석면, 폐페인트 및 페락가, 폐석고
	경일환경개발(주)	구병주	경기 김포 월곶 고양 507-8	서울청	폐합성고분자, 폐석면, 광재, 분진, 폐내화물, 안정화물, 폐촉매, 흡착재, 오니, 석고, 석회, 동물성잔재물, 폐산, 알카리, 폐유, 유기용제
	한국환경개발(주)	최영오	경기 안산 원시 738-4	서울, 경기, 인천	폐산, 알카리, 폐유, 유기용제(비할로젠족)(액상),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페인트 및 락카, 오니(공정, 폐수), 동물잔재, 광재, 분진, 기타
	명진개발(주)	김병하	경기 안산 원시 836-9	서울청	폐합고(경화성 제외), 광재, 분진, 주물사, 폐사, 내화물 소각잔사, 안정화물, 촉매, 흡착재, 오니, 동물잔재, 폐산, 알카리, 폐유, 유기용제
	성림산업(주)	김희중	경기 화성 우정 주곡 161-112	서울청	폐산, 알카리, 폐유, 유기용제(액상), 폐합고, 폐석면, 폐수, 공정오니, 폐석고, 석회, 동물성잔재물
	동운산업(주)	함기문	인천 서 석남 223-21외 6필지	서울청	폐산, 알카리, 폐유, 유기용제(액상), 폐합고, 오니, 동물잔재, 폐석고, 석회, 석면, 농약, 광재, 분진, 폐사, 소각잔재 등
	조양화학공업(주)	손상욱	경기 안산 목내 406-7	서울청	액 : 폐산, 알카리, 폐유, 용제, 고 : 폐유, 폐합고, 광재, 분진, 폐사, 내화물, 소각잔재, 폐촉매, 흡착재, 오니, 동물잔재, 석면, 농약, 석고(회)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대일개발(주)	김기선	경기 안산 성곡 633-2	서울청	폐유, 오니(폐수, 공정, 지정), 폐합고, 폐석고, 석회, 동물잔재, 광재, 분진, 폐사, 흡수, 착재 등(고상), 유기용제, 폐산, 알카리, 오니 등
	(주)대정환경	목성균	경기 용인 이동 서리 148외 5필지	서울청	폐합고, 폐석면, 중금속함유물, 폐촉매, 폐흡착재, 폐유, 폐농약, 오니, 폐석고(회), 동물잔사(고), 폐산, 알카리, 폐성고분자화합물
	서경산업(주)	장석재	경기 광주 실촌 열미 440-5	서울청	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오니(폐수, 공정), 폐석고(회), 동물성잔재
	보성산업(주)	김춘영	인천 남 남동공단 12블럭 11롯트	서울청	오니(폐수, 공정), 동물성잔재물
부산	(주)원창	오원수	경남 울산 남 성암 320-2	부산청	특정폐기물 전항목
	대진기업(주)	구자순	경남 양산 양산 호계 857-16, 17	부산청	고상특정폐기물에 한함
	(주)유성	류성열	경남 울산 남 용잠 430	부산, 경남	전항목
	삼정산업(주)	김윤환	부산 사하 신평 452-10	부산청	폐합고,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소각잔재, 오니,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수광산업(주)	강홍풍	경남 창원 대원 86-4	전항목	전항목
	남양산업	김주영	부산 북 학장 732-4	부산, 경남	전항목
	(주)삼원	안종주	경남 양산 양산 유산 159-46, 74, 20	부산시, 경남	광재, 분진, 폐주물사, 내화물, 도자기편류, 소각잔재, 안정화물, 폐촉매, 흡착(수)재, PCB함유물, 폐석고(회), 폐합고, 오니
	극동산업사	정인태	경남 울산 남 용연 429-5	부산청	전항목
	강서산업(주)	주영환	부산 강서 대저1동 1048-15	부산청	특정폐기물(고상에 한함)
	(주)비전산업	김광정	부산 사하 장림 921, 917	부산청	전항목
	신광산업(주)	김순관	부산 북 감전 501-29	부산, 경남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동물성잔재물, 폐유, 폐산, 알카리, 유기용제, 석면, 광재, 분진, 주물사, 폐사, 내화물, 소각잔사, 촉매, 흡착재, 오니 등
	(주)동아유화	김익수	부산 북 감전 146-8	부산청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소각잔사, 오니
	대하산업(주)	김익수	부산 사하 장림 989	부산청	폐산, 알카리, 폐유, 폐합고, 용재, 석면, 중금속함유물, 폐농약, PCB 함유물, 오니, 석고(회), 동물성잔재물
	대동환경(주)	김승곤	경남 마산 회원 봉암 654-4	부산, 경남	특정폐기물
	서진환경(주)	노재천	경남 양산 산막 332-3	부산청	폐합고,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내화물, 소각잔사, 오니, 폐석고(회), 폐유, 동물성잔재

광주	(주)응아타이어	김종태	전남 나주 왕곡 덕산 224-7	광주청	폐합성고무중 페타이어
	여천환경(주)	조양래	전북 여천 월내 252	광주청	전향목
	(주)호남환경	김수암	전북 전주 덕진 여의 798-5	광주청	폐유, 폐합고, 폐유기용제, 폐석면, 광재, 분진, 폐사, 내화물, 소각잔재, 폐촉매, 흡착(수)재, 오니(폐수.공정), 석고(회), 동물성잔재
	(주)제성양행	문봉태	전남 여천 낙포 854	광주청	폐산.알카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합고, 폐석면 오니, 석고(회), 동물성잔재물
	(주)동영산업	라서곤	전북 군산 미원 184	광주청	폐석면, 오니(폐수.공정). 폐석고, 폐석회, 동물성잔재물
대구	(주)여산	김정원	대구 달서 죽전 148-2	대구청	폐합고, 폐석면, 오니, 중금속함유물, 폐농약, PCB함유물(액상 제외), 오니, 폐석고(회), 동물성잔재물
	(주)광림기업	이시혁	경북 영일 대송 옥명 200-1	대구청	폐산, 알카리, 폐유, 유기용제, 폐합고, 석면, 중금속함유물, 폐농약, PCB, 오니, 동물성잔재, 기타
	(주)남도	남재우	경북 경산 압량 신대 311	대구청	폐합고, 폐석면, 광재, 분진, 폐사, 소각잔사, 오니 (공정, 폐수, 지정), 폐석고(회), 동물성잔재, 기타
	동화개발(주)	송재근	경북 영일 대송 옥명 200-111	대구청	폐산, 알카리, 폐합고, 광재, 분진, 폐사, 소각잔재, 안정화물, 폐농약, 오니, 석회, 동물성잔재물, 폐유, 기타
	(주)동산유통	박정식	경북 경산 진량 선화 127-10	대구청	전향목
	광명산업	권기현	경북 안동 수상 820-13외 3필지	대구, 경북	폐합고, 중금속함유물, 폐농약, PCB함유물, 오니(폐수, 공정, 지정), 폐석고(회), 동물성잔재물 (피혁, 수산가공)
	(주)유봉산업	송태현	경북 영일 대송 옥명 200-1	대구청, 부산청	전향목
대전	(주)동우	오진수	충남 천안 두정 25-33	대전청	산.알카리, 용제, 폐유, 폐농약, 폐합고, 분진, 오니 소각잔재, 주물사, PCB(고상)
	정립개발(주)	안상득	대전 대덕 대화 370-2	대전청	폐합고, 중금속함유물, 폐농약, PCB, 오니(폐수, 공정, 지정), 폐석고(회), 동물성잔재(고상에 한함)
	(주)중원산업	조범연	대전 대덕 대화 413-12	대전청	오니, 폐석면, 분진, 주물사, 소각잔재, 안정화물, 폐촉매, 흡착재, 흡수재, 석고, 석회, 동물성잔재물
	중부환경(주)	윤수명	충남 천안 두정 25-12	대전청	폐합고, 안정화물, 폐촉매, 흡수(착)재, 분진, 주물사 소각잔재, 오니(폐수, 공정, 지정), 석고, 동물성잔재, 광재, 내화물
	(주)호성산업	노재희	대전 대덕 대화 371-4	대전청	특정폐기물 전향목
원주	(합)의림산업	최경호	충북 제천 장타 398-8	원주청	폐합고, 폐석면, 중금속함유물, PCB함유물, 오니, 폐석고(회), 동물성 잔재물
	중앙환경(주)	표순용	충북 제천 강제 26	원주청	폐합고, 폐석면, 중금속함유물, PCB함유물, 오니, 폐석고(회), 동물성잔재물, 기타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관할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구역	처리대상폐기물
서울	원광산업(주)	전재석	인천 서원창 382-39	서울청	폐산, 알카리, 폐유, 폐유용제, 폐농약, 오니, 폐합고, 광재, 분진, 주물사, 내화물, 촉매, 흡착제, 안정(고형)화물
	조양화학공업(주)	손상욱	경기 시흥 시화공단 1다 106	서울, 원주청	지정오니, 폐합고, 폐유, 유기용제, 폐산.알카리
	동양환경개발(주)	채우식	경기 양주 회천 덕계 350-7	서울청	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경화성, 페인트 및 락카 제외)
	동운산업(주)	함기문	인천 서석남 223-21외 6필지	서울청, 대전청	폐산.알카리, 폐유, 유기용제(비)(액상), 폐합고, 광재, 분진, 폐사, 소각잔사, 내화물, 안정화물, 폐촉매, 흡착제
	명진개발(주)	김병하	경기 안산 원시 836-9	서울, 대전청	폐산.알카리, 폐유, 유기용제(비), 폐합고, 광재, 분진, 폐사, 내화물, 소각잔재, 안정화, 폐촉매, 폐흡착제
	대일개발(주)	김기선	경기 안산 성곡 633-2	서울청	(액)폐산.알카리, 폐유, 유기용제, 오니(폐수.공정) (고)폐합고, 폐농약, 지정오니, 광재, 분진 등 중금속 함유물질
부산	(주)원창	오원수	경남 울산 남 성암 320-3	부산, 경남	폐산, 알카리, 폐유, 유기용제, 폐합고.
	(주)한미	윤창한	경남 마산 회원 봉암 660-41	부산, 대구청, 전남	폐유(절삭유)
	(주)성림	박석록	경남 울산 남 황성 218-1	대구, 부산, 광주청	폐합성고분자, 폐유, 유기용제, 오니, 동물성잔재물
	(주)삼원	안종주	경남 양산 양산 유산 159-46	부산, 대구, 광주청	폐합고(페인트 및 락카 제외), 동물성잔재물
	(주)수광산업	강홍풍	경남 창원 대원 86-4	부산, 대구, 광주청	폐유, 폐유기용제, 폐합고, 폐농약, PCB함유폐기물, 오니, 동물성잔재물
	(주)유성	류성렬	경남 울산 남 용잠 490	부산, 대구, 광주청	폐유, 유기용제, 폐합고
	극동산업사	정인태	경남 울산 남 용연 429-5	부산, 광주청	폐유, 유기용제(비할로젠), 폐합고(페인트 및 락카 제외)
광주	여천환경(주)	조양래	전남 여천 월내 252	광주청	폐산.알카리, 폐유, 유기용제, 폐합고, 폐농약, PCB
	호남환경(주)	김수암	전북 전주 덕진 여의 798-5	광주청관할	폐합고(경화성, 페인트 및 락카 제외), 폐유, 오니(폐수처리, 공정)
	(주)제성양행	문봉태	전남 여천 낙포 854	광주청	폐유, 폐유기용제(비), 폐합고(페인트 및 락카 제외), 오니(폐수처리, 공정)
대구	(주)유봉산업	송태현	경북 영일 대송 옥명 200-1	대구, 부산, 광주, 대전·충남북	특정전향목

대전	(주)동양환경	박당우	대전 대덕 문평	대전청	폐유, 유기용제, 폐합고, 오니(폐수, 공정), 폐산,알카리
	(주)호성산업	노재희	대전 대덕 대화 371-4	대전청	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특정폐기물 최종처리업체 현황

관할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관리형 매립지	차단형 매립지	침전지형 매립지	안정형 매립지	처리대상 폐기물
광주	제성양행	문봉태	전남 여천 월내 산 66	14870.000	0.000	0.000	0.000	폐산,알카리, 폐합고(합성수지, 기타), 폐석면, 오니(폐수, 공정), 폐석고(회), 동물잔재 (피혁, 수산), 소각잔재 및 분진
	(주)여천환경	조양래	전남 여천 월내 252	6866.000	0.000	0.000	0.000	폐유, 폐산,알카리,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오니, 동물성잔재물
소계				21736.000	0.000	0.000	0.000	
대구	(주)유봉산업	송태현	경북 영일 대송 육명 200-1	35500.000	1040.000	0.000	0.000	폐석면, 폐석고, PCB, 폐석회, 오니, 동물잔재물, 총리량이 정하는 물질

'날씨산업' 신성장산업으로 각광 농수산, 레저, 유통업종에서 인기

기상정보를 기업이나 단체에 제공해 주는 '날씨산업'이 미래 업종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아직 업체는 별로 많지 않지만 날씨정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날씨산업이란 날씨에 관한 정보를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가공해 제공해주고 일정한 정보 이용료를 받는 업종을 말한다. 기상청에서 날씨예보를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분야별로 각각 다르게 요구하는 정보를 기상청이 일일이 제공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처럼 기상청과 수요자간의 교량역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은 지난 66년 설립된 한국 기상협회의 민간기업인 (주)웨더뉴스, 미국 기상정보회사의 국내법인인 오션루트사 등이 있다.

기상협회는 기상청의 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상정보 제공기관이다. 기상협회는 현재 부산, 울산, 포항, 대구, 여수, 청주, 인천 등 전국 7개지역에 지부를 두고 5백여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83년 2백60여개, 87년 3백90여개에서 이용업체가 매년 20~30개씩 늘어나고 있다.

기상협회는 기간과 내용별로 정보를 가공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제공한다. 내용에 따라 식품, 교통, 건설, 농림 등 8개 분야로, 기간에 따라 5일예보, 주간예보, 3개월예보, 계절예보 등으로 나눠 정기적으로 알려준다. 이용료는 월 3만~5만원 수준이다.

기업들의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날씨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가 기업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장마와 태풍을 앞둔 5~8월은 날씨정보에 대한 최대 성수기다. 지금쯤이면 날씨에 민감한 업종은 이미 올 여름철의 기상예보에 따라 제품생산 및 판매전략을 마무리 해놓고 있다.

날씨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업종은 해운, 음료, 병과, 농수산, 건설, 레저, 유통 등이다. 범양, 현대, 한진 등은 외국의 해양 기상정보 회사로부터 1건당 8백~1천달러씩 주고 제공받는다. 병과, 의류, 전자업체 등 제조업체들은 '올 여름이 더울지 서늘할지, 올 겨울이 추울지 따뜻할지'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주)빙그레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이나 청량음료 수요는 날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며 "정확한 날씨정보를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83년 8월 18일자에서